

※ 五行의 旺相論

①五行의 個體 및 그 相互間의 生成, 發展, 安定, 停滯, 衰退의 운동단계를 旺相死囚休의 부호로 표시한 것으로 五行의 相生相剋 관계로 표시하면 我를 중심으로

- 我是 旺(王相之任): 같은 기운에 힘입어 기능을 최대한 발현함
- 生我者는 相(則生): 本體에 滋養을 받아 機能을 활발히 發揮하는 時空
- 克我者는 死(克): 자기를 克하는 氣運에 의해 기능이 사라지고 정지함.
- 我克者는 囚(圍人): 相侮의 氣運에 의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억압됨.
- 我生者는 休:引하는 氣運에 의해 원활히 기능을 발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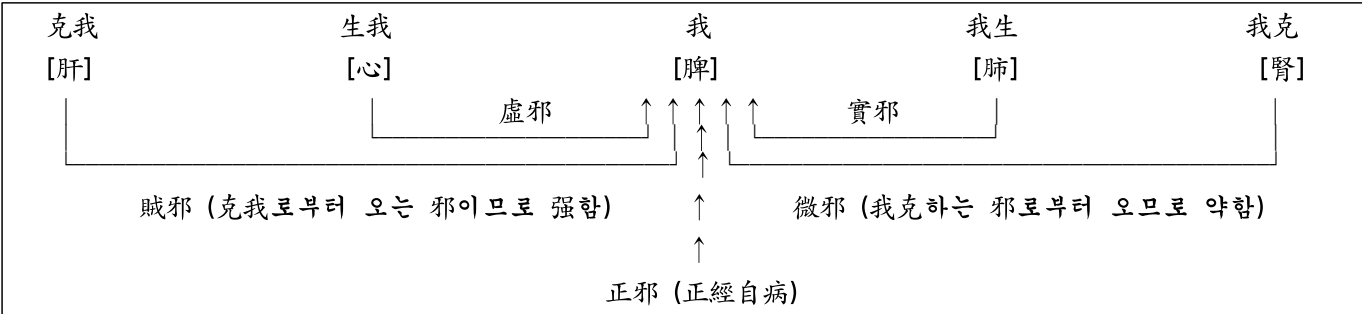
※ 變化 原則 (cf, 我克囚, 克我死로 해석, 我를 五臟으로 해서 문제해결)

	春	夏	長夏	秋	冬
肝 (木) 風	旺	休	囚	死	相
心 (火) 熱	相	旺	休	囚	死
脾 (土) 濕	死	相	旺	休	囚
肺 (金) 燥	囚	死	相	旺	休
腎 (水) 寒	休	囚	死	相	旺

※ 五邪 (難經.50難)

- ①虛邪(從後來者): 母病及子 -- 病邪가 生我하는 데(母의 位)서 傳來한 것.
어떤 臟에 病이 있을 때 我生의 臟에 그 影響을 미치는 것.
ex. 水不涵木(=>肝陽上亢, 虛證), 心肝火旺(實證)
- ②實邪(從前來者): 子盜母氣(子病及母) -- 病邪가 我生(子)하는 데서 傳來된 것.
어떤 한 臟에 病이 들었을 때 生我的 臟에 影響을 미치는 것.
- ③賊邪(從所不勝來者): 病邪가 克我하는 데서 傳來한 것(相乘의 傳變)
어떤 한 臟에 병이 있을 때 我克의 臟에 영향을 미치는 것. ex. 木旺乘土
- ④微邪(從所勝來者): 病邪가 我克하는 데서 傳來한 것(相侮의 傳變)
어떤 한 臟에 병이 있을 때 克我的 臟에 영향을 미치는 것. ex.木火刑金, 土虛水侮
- ⑤正邪(自病者, 스스로 앓는 것): 臟자체의 속성과 같은 病邪의 침범으로 발병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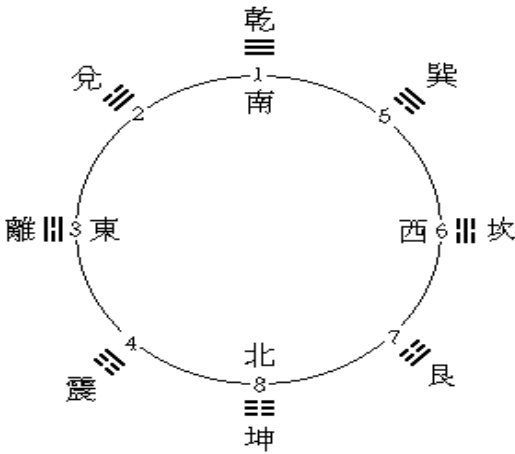
※ 五邪傳變論 (‘難經’에서 由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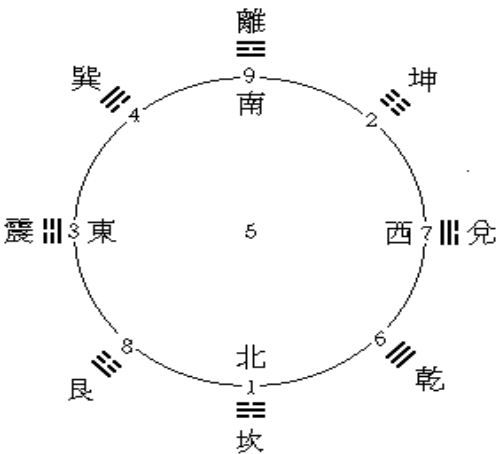
※ 八卦 (地天泰, 天地否(痞), 水火既濟, 火水未濟...)

	卦	卦名	自然	사람	방위	四象
1	☰	乾 三連	天	父	西北	太陽
2	☱	兌 上絶	澤	小女	西	
3	☲	離 虛中	火	中女	南	少陰
4	☳	震 下連	雷	長男	東	
5	☴	巽 下絶	風	長女	東南	少陽
6	☵	坎 中連	水	中男	北	
7	☶	艮 上連	山	小男	東北	太陰
8	☷	坤 三絶	地	母	西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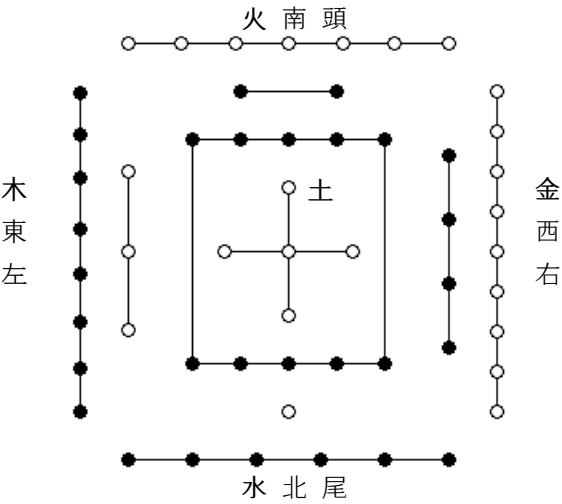
1. 先天八卦圖：



2. 後天八卦圖：



河圖



七
二
八 三 五十 四 九
一
六

《河圖配數圖》

內：1. 2. 3. 4. 5 → 生數：生命의 本
外：6. 7. 8. 9. 10 → 成數：形象(겉모습)을 이룬 것

※ 음양의 속성

(1) 全一

전일은 '온전한 하나'라는 의미다. 음양은 사물과 현상을 음과 양이라는 두 요소로 나누어 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을 음양의 대표적인 속성으로 꼽는 것에는 음과 양이 전체의 부분으로서 전체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전일과 음양은 '하나이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인(一而二 二而一)' 관계에 있다. 음양은 전일이라는 일원적 본체의 양면이고, 전일은 음양 현상의 통일성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전일과 음양은 본질이 서로 다르지 않으며 전일로부터 분화된 음양(一而二)은 다시 통합되어 전일로 귀속된다(二而一).

(2) 待對

대대는 상대(相對)라는 용어로는 그 의미를 다 드러낼 수 없다. 중의학에서는 음양을 변증법적으로 해석하여 음양의 관계를 상호모순, 상호투쟁, 상호대립 등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음과 양의 관계는 이분법적인, 대립과 모순이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음양 관계의 본질은 서로 대립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서로 의존하며, 또 상반되면서도 서로를 이루는 상반상성(相反相成)의 관계가 중심이 된다. 이를 대대라 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음과 양이 전일의 양면으로서 상보적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3) 統一

통일은 음과 양이 상호동근(相互同根)인 하나의 통일체가 됨을 말한다. 전일에서 분화된 음양은 서로 상대적이면서 대립적인 속성을 가지지만 이는 다시 전일의 양면으로 집약되어 통일성을 갖는다. 통일은 음양으로 분화한 이후에 다시 전일로 통합되는 과정을 말한다.

(4) 分化

분화는 음양 속에 다시 음양이 있어 음이 다시 음양으로 나누어지고 양도 다시 음양으로 나누어지는 속성을 말한다. 즉, 음양의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상대적인 편차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음과 양에는 각기 다시 음양으로 나누어져 끊임없이 분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것은 음양이 분화를 통해 구체적인 사물에까지 적용해 나갈 수 있다는 확장성을 말한 것이다.

(5) 消長

소장은 음양의 상대적 관계가 정지하여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퇴소장(進退消長)하는 역동적 과정 속에 있는 것임을 말한 것이다. 음과 양의 관계는 음기(陰氣)와 양기(陽氣)가 끊임없이 진퇴, 소장하면서 동태적 평형을 찾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